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EIB 기후적응 계획의 주요 내용

북한포커스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추진현황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EIB 기후적응 계획의 주요내용 1

북한포커스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추진현황 3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6



EIB 기후적응 계획의 주요 내용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 현 진 (maxnlio@kdb.co.kr)

- ◆ EIB는 EU의 '신 EU 기후적응 전략' 지원 및 글로벌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21.10월 'EIB 기후적응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EIB의 기후적응 금융지원 계획을 제시
 - '25년까지 전체 기후금융의 15%를 기후적응 분야에 할당, 개도국 기후적응 지원 등
- ◆ 동 계획은 EIB의 기후은행 로드맵과 병행 운영되며,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될 전망

□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은 회원국,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1.10월 'EIB 기후적응 계획(The EIB Climate Adaptation Plan)'을 발표

* 기후완화(Mitigation)는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의 소멸, 감축에 초점을 두는 반면, 기후적응(Adaptation)은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극복에 중점

-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로 기후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적응 금융지원 규모는 매우 저조한 수준을 유지
 - 기술적 한계 등으로 명확한 기후적응 금융지원 규모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EU 집행위원회('17)는 역대기준 연간 350억에서 5,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 UNEP('20)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을 위해 '30년까지 연간 1,200억유로에서 2,500억유로 소요 전망
 - 한편 '19~'20년 글로벌 기후적응 금융지원 규모는 연평균 460억달러로 전체 기후금융의 7% 수준[Climate Policy Initiative(2021)]
- 'EIB 기후적응 계획'은 파리기후협약 및 '신 EU 기후적응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EIB의 금융지원 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
 - * '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는 '21.2월 발표된 EU의 기후적응 정책으로, 1) 영리한 적응, 2) 체계적 적응, 3) 신속한 적응 및 4) 국제적 행동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
 - 기후변화 자체의 불확실성과 함께 기후적응 투자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민간 투자 유인에 한계 존재
 - 이에 기후적응을 위한 EU 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EIB의 역할이 대두

□ 동 계획은 ①영리하고(Smarter) 체계적인(More Systemic) 적응 지원, ②신속한(Faster) 적응 지원, ③국제적 행동 강화를 주된 목표로 기후적응 금융지원 확대를 강조

- EIB는 과학적 역량 제고,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내부 프로세스 및 금융지원 방법을 지속 개선함으로써 영리하고 체계적인 적응을 지원할 계획
 - Climate-ADAPT 플랫폼을 통해 기후적응 관련 기술,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예정

- 또한 CRA(Climate Risk Assessment System)에 축적된 데이터, 과학지식 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개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리스크관리를 강화
- 동 계획은 신속한 적응을 위해 기후적응 금융이 Scale-up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핵심 기후적응 투자 분야도 제시
 - EIB는 '25년까지 전체 기후금융의 15%를 기후적응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기후적응 금융지원의 효과분석도 추진할 예정
 - * EU Taxonomy에 따라 기후완화 등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명시
 - ** 기후위기 노출도 감소정도,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감축정도 등을 바탕으로 수립 계획
 - EIB는 동 계획을 통해 물 부족 및 홍수, 에너지 보존 및 운송 등 핵심 기후적응 투자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을 제시
 - * 직접투자, 장기 투자 프로그램(Multi-annual Investment Program), 중개금융(Intermediated Financing) 등을 통해 기후적응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75%까지 지원 계획

핵심 기후적응 투자 분야

구분	핵심 분야
① 물 부족, 홍수	해상, 내륙지역 홍수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도시 배수 시스템 증축 등
② 에너지 보존, 운송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전력시스템의 분산화, 노후 운송인프라 재건 등
③ 도시/지역 개발	도시재생, 기후대응 도시 인프라(건축, 네트워크 등) 구축 등
④ 식품, 숲, 생태계	자원 효율적인 작물 재배, 조림/재식림 등 생태계 복원 등
⑤ 건강, 교육, 공공	기후변화가 전염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헬스 인프라 구축 등
⑥ 혁신	기후적응을 위한 기술, 공정, 서비스, 제품 개발 등
⑦ 재난재해 관리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예측 등 리스크관리
⑧ 성평등	성인지(Gender-responsive) 기후적응,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

자료 : EIB(21.10), "The EIB Climate Adaptation Plan-Supporting the EU Adaptation Strategy to build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 EIB는 글로벌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최빈개도국(LDC), 군소도서개도국(SIDS)*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의 기후적응도 촉진할 계획
 - *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카리브해, 태평양,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58개의 작은 섬나라들로 잦은 자연재해, 위치적 제약 등 문제 보유
 - EIB는 LDC와 SIDS에 기후적응 금융지원시 전체 소요자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
 - 교통, 에너지, ICT 등 핵심 분야의 기후적응 지원, 관련 혁신기업 육성, 난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
- EIB는 '20.11월 발표된 'EIB그룹 기후은행 로드맵 2021-2025(CBR, EIB Group Climate Bank Roadmap 2021-2025)'와 병행하여 4년간 동 계획을 수행할 계획
- EIB는 매년 발표되는 CBR 진행보고서에 'EIB 기후적응 계획'의 이행실적 및 평가를 포함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동 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추진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박태호 (nkorea@kdb.co.kr)

- ◆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기존 경제정책의 보완성격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21~25년)을 채택하고 금속,화학 등 기간산업의 생산설비 정비, 평양시 5만세대 주택 등 건설사업 추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
- ◆ 노동당 및 내각의 후속 회의, 주요 고위직들의 현장지도 및 분야별 점검, 관영매체 선전 등을 통해 '5개년계획' 중점 목표 달성 독려
- ◆ 평양 1만세대 건설, 삼지연시 3단계 완료, 중점 산업분야 목표달성 등 첫해의 성과를 발표하였으나, '5개년계획'이 정비·보강정책 위주이고 폐쇄적 경제환경 下의 자력갱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경제의 큰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채택하고, 당 중앙위 제8기 2차, 3차 전원회의를 거쳐 목표 구체화

- 제8차 당대회(21.1.5 개최)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16~20년, 이하 '5개년전략')의 후속 경제정책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1~25년, 이하 '5개년계획')을 채택
 - * 제7차 당대회(16.5.6~9)에서 채택된 전략으로, 경제와 핵 병진노선 하에 에너지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형부문과 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농업과 경공업 생산증대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 등 목표
- 당 중앙위 제8기 2차(21년 2월), 3차 전원회의(21년 6월)를 통해 5개년계획 기간중 목표와 과제 구체화
- '5개년계획'은 '5개년전략' 실패에 따른 정비, 보강을 위한 후속 경제계획 성격으로 금속과 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의 생산설비 정비, 평양시 5만세대 건설, 삼지연시 개발 등 건설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
 - 김정은 총비서 등은 '5개년전략' 실패와 실패원인*에 대해 지적
 - *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김정은 총비서, 제8차 당대회), '그릇된 사상 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구태의연한 사업방식'(김덕훈 총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회의), 주요 경제지표 달성 실패의 원인으로 패배주의, 요령주의, 전략목표 수행 소홀 등을 지적(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 제출 내각 사업보고 내용)
 - 내각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21.1.17 개최)에 제출한 사업보고를 통해 '5개년계획' 주요목표 추진방안과 예산배정 계획 등 제시

'5개년계획' 분야별 주요 목표

구분		주요 추진내용	예산투입 규모 ('21년)
기간산업	금속	선진기술 개량, 에너지절약형 신제철로 건설, 선철 생산에 북부지구 갈탄 이용	전년 대비 100.9%
	화학	비료공장 생산 정상화 및 생산능력 확대, 탄소하나(C1) 화학공업 창설, 자체 원료 활용을 통한 화학산업 구조 개편, 화학섬유 등 화학제품 생산 정상화	
	기타	전력, 기계, 석탄채굴, 건재, 운수분야 생산증대, 설비 정비 등 추진	
농수산업, 경공업	농수산업	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찾기와 간석지 개간, 어선과 어구의 현대화 등	필요자금 적기 공급 보장
	경공업	경공업제품 품질 제고, 원료자재의 국산화 및 재자원화	
건설사업	주택건설 건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연 1만세대), 검덕지구 2.5만세대 살림집 건설, 시멘트 생산량 800만톤 달성	전년 대비 101.6%
기타	과학기술	과학기술 심의체계 수립, 과학기술 10대 목표 수행	

자료 :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 제출 내각 사업보고, 국가예산보고('21.1.18 조선중앙통신) 내용 정리

□ 최고인민회의 개최, 고위직들의 산업현장 점검, 관영매체 선전 등을 통해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독려

- 노동당 및 내각의 후속회의에서 '5개년계획' 목표 달성에 대해 지속 강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21.4.11, 10.26), 당 중앙위 제8기 전원회의(2차 '21.2.8~11, 3차 '21.6.15~18)와 정치국 회의('12.12.1) 등에서 동 계획기간중 목표 구체화와 달성 강조
- 김정은 총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경제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각 사업단위별, 분야별 경제성과 점검 및 독려 진행
 - 김정은 총비서의 현장지도는 주로 주택, 교통 등 민생편의 관련 사업에 집중
 - * 평양 1만세대 주택 건설사업,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건설사업, 삼지연시 3단계 건설사업 등을 현장지도
 - 김덕훈 내각총리는 '5개년계획' 중점 대상인 주요 기간산업 생산단위, 농사 현장 방문을 통해 성과 독려
 - * '21년중 40여 차례(월평균 3회 이상) 현장방문 실시 (통일부, 일일 및 월간 북한동향)
-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은 '5개년계획' 중점 공장, 기업소들의 성과 소개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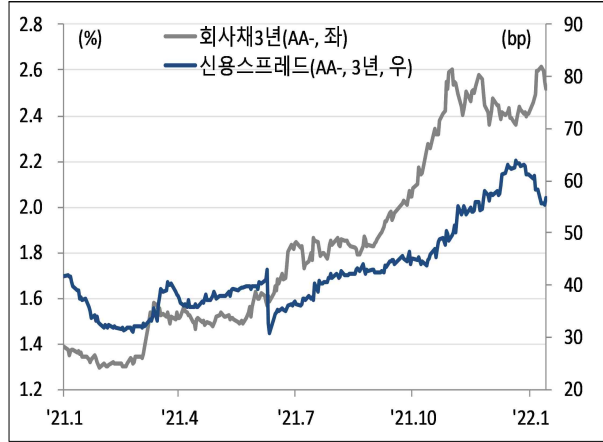
- '5개년계획'의 정량목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사업단위들의 생산공정 정비, 재자원화, 국산화 노력 사례 등 위주로 성과 소개
 -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탄부들, 석탄생산목표 점령할 비상한 각오 안고 자력갱생·건인불발의 투쟁으로 전진'(노동신문, 11.8),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일꾼들, 교대간 협동을 강화하고 용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 진행하며 설비·기술관리 짜고 들며 생산 박차'(노동신문, '21.11.20)
- 일부 생산단위의 경우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보도
 - *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석탄생산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3.8%로 장성'(조선중앙방송, '21.5.30), '홍남비료연합기업소, 5월 인민경제계획 101.7% 수행'(조선중앙통신, '21.6.2)

□ '5개년계획'의 첫해 실적으로 삼지연시 3단계 공사 등 건설사업 실적을 중점 선전하고 있으나 기간산업 등의 정상화를 통한 북한경제의 큰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당 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21.12.27~31)에서 '5개년계획' 기간의 첫해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
 - 평양 1만세대(송신, 송화지구) 및 함남 검덕지구 5천세대 건설, 삼지연시 3단계 공사, 함경도 홍수피해 복구 등 주요 건설사업 성과 제시
 - 전력, 석탄, 건재, 기계, 철도운수 등 부문의 연간 계획사업목표 달성 선언
 - * 삼지연시 건설, 금속과 화학공업 생산량 증가,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수만 미터 굴진 실적, 평안북도 새땅찾기 성과 등 보도(노동신문, '21.12.7~10)
 - ** 김정은 총비서는 당 중앙위 제8기 5차 정치국회의('21.12.1)에서 '농업, 건설분야에서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언급
- '5개년계획'의 첫해 실적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택건설 사업에 집중
 - 전력, 석탄, 건재, 기계 등의 연간목표 달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와 실적 수치 미제시
- 폐쇄적인 경제환경 하에서 자력갱생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간산업의 생산정상화를 통한 북한경제의 성장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금리 · 환율 · 주가

금리 국고채3년 2.044% (2.9bp ↑), 신용스프레드 56.2bp (2.1bp ↓)



환율 원/달러 1,187.3원 (14.2원 ↓), 엔/달러 114.19엔 (1.37엔 ↓)



주가 코스피 2,921.92pt (1.12% ↓), 코스닥지수 971.39pt (2.39%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61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